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3:26-31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울지 말고 올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3월 8일	3월 15일
윤원신	장헬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예수와 바라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곧 나의 모습을 투영한 존재들입니다. 앞에서 살 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고, 가롯유다가 그러하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바라바가 그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나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은 나와 전혀 무관한 책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심판 받는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과 법 관례에서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까지 총 6번의 심문과정과 재판과정을 거치시며 최종 사형 선고를 언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상식적인 재판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이뤄진 날치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연이 벌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진리를 죽이려 하는 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과없이 폭로하고 노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며 본문의 빌라도가 바로 나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 역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민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를 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라바라는 흉악범보다 예수라는 존재를 더 유대사회를 흔드는 위험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아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바로 그 세상의 아들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처럼 죄된 인간은 오늘도 자기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부와 자존심을 쟁기며 하나님의 것을 모두 부정하고 죽여 버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내가 예수를 죽인 당사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빌라도가 있고 바라바가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는 죽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길도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